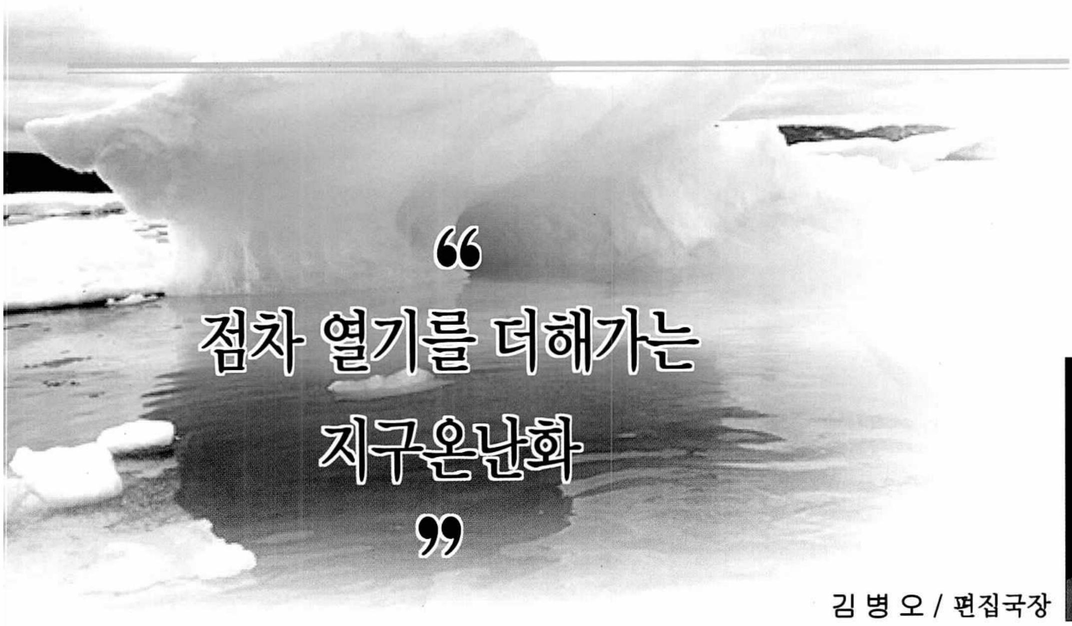

"점차 열기를 더해가는 지구온난화"

김 병 오 / 편집국장

금년에도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환경보전을 외치며 전국을 누비며 다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보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

올해도 어김없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과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한 여름밤의 최저 기온이 25℃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한해였다. 이로 인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이 풀가동 되는 바람에 전력소비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기도 한 기억이 있다. 또 지난 8월에 그리스 남부지역을 폐허로 만든 유례없는 산불과 몇 달 후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꼬집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류의 재앙이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산업혁명이후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온 공업화 및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난화 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문명에 의해 초래된 현상이다.

지금 세계는 인류의 대재앙을 예견하고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들이 문명의 이기로 초래된 현 상황을 수혜자부담원칙을 어기고 책임회피와 국가이익만 챙기려는데 있다. 국제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고 각국이 대응전략은 마련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산업구조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10월 12일 뉴욕타임즈 1면을 장식한 인물은 미국의 전 부통령인 엘고어 였다. 이유는 그가 금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그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환경영화 '불편한 진실' 은 올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알고 있지만 불편하기에 외면했던 진실」, 「불편하겠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미래의 환경재앙에 대한 경고이다.

엘고어는 비영리 환경단체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가이다. 그가 정치를 그만두고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가 아닐까? 이제 환경보전은 지위고하 및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다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이다.

개인이나 국가, 더 나아가 인류가 공생하고, 우리 후손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이상 재앙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지구온난화 열기' 를 식히는 일만이 그 해결책이다.